◇ 新武器開發競爭 ◇

軍事技術은 역사적으로 量子論的인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처음에는 아마 돌멩이로 시작하여 다음에 몽둥이, 불(火), 창, 활, 그리고 총포와 내연기관 등으로 발전했으며 드디어 원자탄이라는 가공할 무기가 개발되었다.

세계는 또다시 전투력분야에 있어서 혁명적 비약의 찰나에 와있다.

美행정부는 내년의 무기조사・평가예산으로 79회계연도보다 10억달러가 많은 1백40억달러를 議會에 요청해 두고 있는 것이다.

美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80회계연도에 불과 2년전 對比 무려 62%가 증액된 4억6천백만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예산의 대부분이 기상천외의 신무기 연구개발에 쓰인다. 물론 DARPA의 활동은 기밀이다. 이 기관의 정확한 업무내용은 불과 소수의 軍 및 정부관리들만 알고 있다.

그러나 연구관계자들은 자신들이 現代戰의 양상을 상상외의 가공스런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체제를 개발하고 있음을 솔직이 시인한다.

예컨대 과학자들은 현재 연료공기폭탄(FAE)을 개발중이다. 이미 폭탄자체의 개발은 끝났으며 이를 발사용 포탄으로 만드는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FAE 1개가 폭발할 경우 광범한 지역상공에 연료를 氣化시켜 평방「인치」당 3백파운드의 殺傷力을 낸다.

과학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신무기는 이밖에도 허다하다. 이들은 芳香과 적외선을 이용, 夜陰을 밝히고 운동력을 이용, 地上의 어떤 裝甲장치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미래의 군인들은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微小생명체를 이용, 敵의 생명력을 無力化시킬지도 모른다.

地上戰의 경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종래의 戰爭개념은 언젠가 사라지고 대신 고도로 기동성이 뛰어난 기계화부대가 전쟁을 代行하게 될지 모른다. 그 경우 2인승 탱크들이 戰場이 主力를 이루거나 아니면 아예 원거리 조종에 의한 로보트들이 전쟁을 수행하게 될지 모른다. 미래의 전쟁은 한마디로 기계對기계의 싸움이 된다.

海戰의 경우, 항공모함 또는 그밖의 거대한 軍艦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無人잠수함에 밀려날 것이다. 현재의 잠수함보다 훨씬 소형이될 미래의 잠수함은 하늘을 날아 목표를 공격하거나 또는 공중에서 투하돼 敵의 U보트를 파괴할 수 있도록 고안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敵艦의 위치를 판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10년후가 되면 인공위성에 의해 敵艦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DARPA관리들은 『오래지 않아 5백마일 밖에 바다위를 스치는 미풍이라도 탐지해낼 수 있게 될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발달은 미래의 空中戰을 원격조종에 의한 無人機들의 전쟁으로 양상을 뒤바꿔 놓을 것이다. 인공위성이 사령탑이 되어 無人機들을 지휘한다. 물론 地上에서는 군사전술가들이 TV앞에 앉아 하늘의 戰況을 컴퓨터로 분석하면서 최종적인 작전을 명령한다. 미래의 空中戰은 TV화면 앞에 앉은 전술가들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空中戰이 우주 공간으로 발전될 경우 地上사령본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 전쟁을 수행한다.

그래서 DARPA관리들은 敵의 위성체제를 無力化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敵의 위성체제가 못쓰게 될 경우 敵은 制空權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것을 총지휘통제하는 인간의 두뇌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능력을 최대로 증진시키는 한편 여기에 전자두뇌를 가미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이 언젠가 기계와 結婚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고 믿고 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인간의 두뇌와 기계의 두뇌가 결합, 가장 완벽한 두뇌가 탄생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두뇌가 전쟁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인류자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련의 前수상 니키타・흐루시초프는 이미 『과학자들이 그들의 서류가방에 넣고 다니는 꿈은 가공할 만한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었다. 〈UPI〉